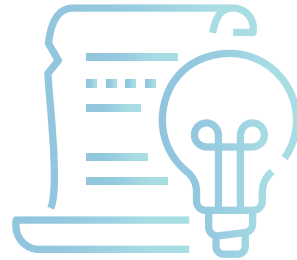


물어 묻는 자와 답하는 자가 만날 때



브리짓지경제

김선호 기자



기자의 일상을 절반으로 나누면, 그중의 대부분이 취재원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 작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 중 하나나 자신이 취재원이 되어본 것이었다. 낮에는 기자, 밤에는 평론가의 삶을 살아가는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늦은 퇴근 날에 매일 한 통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내용인즉 XX일보의 문화부에서 평소 기고했던 글을 잘 보았다며, 자신이 진행하는 취재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평소 기사 마감을 위해 취재원에게 전화를 돌린 적은 많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사에 취재원으로 등장하게 될 줄은 몰랐다. 솔직히 기자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경험하게 되니 웃음이 나오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이 재밌는 이야기를 마저 하려면 내가 기사를 처음 시작하던 작년 초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걸 수습을 막 시작한 내가 신입기자로 거듭나기까지의 짧은 순간을 담은 이야기다.

(...)

기자를 지망하는 사람의 수가 줄고 있다고들 한다. 여러 이유가 생각나지만 개인적으로는 글 자체의 힘이 줄어든 게 이유가 아닐까 한다. 책 한 권을 읽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온라인의 마른 글귀들이 묻혀버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시대에 기자가 됐다. 언론이 사양산업이라고들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광화문에 있는 모 신문이다. 어쩌다 본 시험에 붙어 온 좋게 입사하게 됐지만, 사실 이 일은 평소에 생

각해본 적이 없던 것이었다. 남들이 다 한다는 언론사 스테디나 인턴 경험 한 번 해보지 않았고, 평소에 기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내가 언론사 시험을 계속 보았던 건, 단순히 글을 쓰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영화가 좋아서 영화이론을 공부하려 대학원에 갔다. 언제 어디서나 글감이 생기면 꾸준히 쓰는 그런 일상을 보냈다. 스스로 고백하러니 부끄럽지만 부산일보 신춘문예에서 영화평론도 당선돼봤으니,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만화평론상도 받으면서, 세간에는 영화와 만화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입사를 하니 주변에서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 안 됐겠냐고들 했다. 이미 여러 분야에 등단한 사람이고 문화예술에 뜻이 있다면, 진로를 포기하기에는 뭔가 아깝지 않겠냐고 말이다.

신입으로서 인사를 다니는 자리에는 영화평론가라는 소개가 뒤따르고는 했다. 면접장에서 뵈었던 국장님과의 첫날, “김군은 영화평론가다.”라는 소개를 들었을 때는 무언가 멋쩍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취업할 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자신을 소개하기에 좋은 정체성이 생긴 것만 같았다.



수상을 위해 방문했던 부산일보 본사.

지금도 나는 여전히 스스로가 기자 같지 않다고 느낀다. 내가 아는 기자의 모습은 영화 <신문기자>에 나오는 심은경 배우처럼 무언가에 골몰히 여겨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스스로를 기자로 소개하기가 멋쩍을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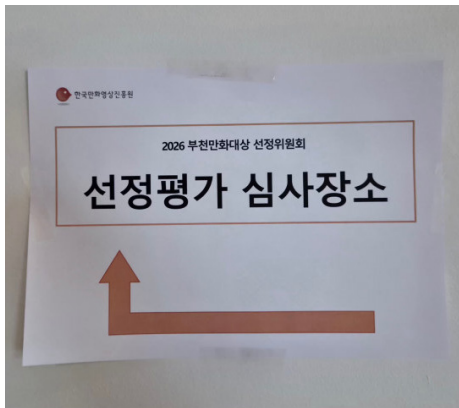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그와 정반대의 생각도 하고 있다. 자신을 평론가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 먼저 나서서 소개하기에는 무언가 부끄럽다. 그런 마음을 대신해 ‘기자’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직업인로나 예술인로나 무언가 자신을 되찾지 못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2026 기자의 세상보기



지난해 11월 열린 제25회 만화의 날 기념식 행사장 바깥에 걸린 현수막 사진



이후 2026 부천만화대상 심사위원단 참여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방문했다.

있을까. 직업이 곧 명함이 되는 때도 많지만, 대개는 직업이 자신을 대변하지 못할 때가 많다. 기자에게 명함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징표이지

그 자체로 자신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떤 기자들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깊이 실망한다고들 한다. 정보를 수집하지만, 정작 그 자신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평론가도 비슷한 면이 있다. 평론가는 작품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아서 예술의 기생충이라는 말을 듣곤 한다. 과격한 수사지만, 본질만을 놓고 보면 기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과 겹이 닿는다. 평론가는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만의 식견으로 이를 내놓는 사람이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내어줌으로써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 보자고 다독이는 존재다.



임희윤 음악평론가

- 문화 강연자, 저술가, 음악평론가
- 현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
- 전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이재흔 연구원

- 대학내일20대연구소 트렌드 파트장
- 《Z세대 트렌드 2025》 시리즈 도서 총괄 PM
- 《트렌드 읽는 법》 도서 집필



수차미 서브컬처 평론가

- 2019년 한국예총 예술세계 평론상 수상
- 202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영화평론 당선
- 2025년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우수상

대학내일 매거진 '애니보는 사람은 합하다'에 참여했던 인터뷰 인물소개 페이지. 대학내일

기자 일을 배우면서 적응이 어려웠던 건 그런 것이었다. 수습으로 부서를 돌 때, 다른 부서의 부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었다. “아직 물이 덜 빠졌다”고. 기자로 일한다고 해서 평론을 그만둘 게 아니니까 방향성이 다른 글을 ‘동시에’ 해내도록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평론가가 직접 나서 무언가를 말한다면, 기자는 타인의 생각이나 말을 전하는 것이어서 이 둘은 분명 상충한다.

방향성이 다른 두 정체성 사이에서 쉽 없이 고민하며 적응하던 시간은 어느덧 흘러, 이야기는 다시 시간을 돌아 이제 막 입사 1년을 넘긴 시점으로 이어진다.

부서에 배치된 후, 여러모로 혼나며 일을 배우면서도 슬슬 기자로서의 ‘태’가 날 무렵이었다. 발제도 그럭저럭, 글도 그럭저럭하며 1인분의 삶을 해나갈 때다.

질은 어둠을 안고 집 앞에 도착한 나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다른 매체에서 코멘트를 했던 걸 보고서, 혹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연락이었다.

평론가로 살다 보면 기고나 인터뷰를 진행할 일이 있지만, 신문기자로서 다른 신문에 취재원이 되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나 평소 전화 취재를 진행하며 여쭙는 ‘전문가’ 분들이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하면 ‘기자’가 ‘기자’를 인터뷰하는 일은 무언가 흥미롭다. 평소 기자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여겼는데,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을 경험하니 할 말이 없어졌던 것이다.

평소 두 개의 정체성을 서로 분리해보던 나에게 이 경험이 준 교훈은 다음과 같았다. 사람의 모습에 여러 면이 있듯, 결국 중앙에 서 있는 건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기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결국 진실은 하나일 수 있다. 명확한 답이 아니더라도 결국 무엇이 틀린지, 자신이 활자로 옮기는 것이 행여나 정의를 표방한 기만은 아닌지를 자문해보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저 관점에 따라 쓰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뒤로 돌아간다. 단지 그뿐이다. 예전에는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것만이 평론가로서 유일하게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글을 몇 해 동안 쓰면서, 생각 자체를 다루는 일이 좋아져서 더 많은 길을 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나는 몰라도 다음에 오는 사람은 저 앞을 편하게 걸을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들의 삶과 앞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브릿지경제 김선호 기자